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 주임신부 : 권지훈(베드로)
- 사목회장 : 김성연(야고보)
- 사제관 : (808) 422-1040
- 사무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kcc@gmail.com](mailto:honolulukcc@gmail.com)  
 ◦ 홈페이지 : <https://standrewkimhawaii.org>

제2305호

2026년 6월 21일(가해)

미사 안내	평일	화, 수, 금 : 오전 10:30 목 : 오후 7:00 (성체 강복: 매달 첫 번째 목요일 7시 미사 중)	주일	토 : 오후 4:00 일 : 오전 06:30, 10:30 오후 4:00 (St. Peter & Paul 성당, 매월 셋째 주 마우이 공동체 오후 2:30)
연령회	병자성사,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 환자 또는 망자 발생 시에는 신속히 연령회로 연락 바랍니다. - 연령회장: 김미아 헬레나 (808) 291-7811			



## 오늘의 미사

## 연중 제12주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독서 : 예레미야서 20,10-13</li> <li>▶ 화답송 : 주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li> <li>▶ 2독서 : 로마서 5,12-1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음 환호송</li> <li>◎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하시고 너희도 나를 증언하리라.</li> <li>◎ 알렐루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음 : 마태오 10,26-33</li> </ul>	

성가 ▶ 입당: 29 ▶ 봉헌: 220, 219 ▶ 성체: 165 ▶ 파견: 68

① 피터 앤 폴 성당 파견 미사가 없습니다.(6월 21일, 6월 28일)

21일(일-연령회) , 28일(일-본당행사 : 점심식사 있음)

② 6월은 마우이 공동체 미사가 없습니다

(St. Anthony Church - 1627 Mill St. Wailuku, HI 96793)

③ 7월 봉성체 안내

7월 봉성체는 7월 16일(목, 오전) 서쪽 지역, 7월 17일(금, 오후) 동쪽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④ 매월 셋째 주 '화해와 일치 주간' (6월 21일~27일)

⑤ 매월 넷째 주 6월 27일(토), 28일(일) '한끼 나눔'



사목공지



사목위원회

① 2027년 예비 신자 모집

2027년 3월 27일 세례식~부활성야

교육기간 : 2026년 8월 2일~2027년 3월 27일

② 복음화 카드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 장 14 절)

※ 모든 신자가 적극 참여하시어 새 신자를 찾아 복음화 카드에 기록 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역 및 단체

① 연령회 모임

일시: 6월 21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당

③ 알라모아나 구역 모임

일시: 6월 27일(토) 오후 6시

문의: 김엠마 228-0088

② 꾸리아 월례 모임

일시: 6월 21일(일) 11:45

장소: 컨퍼런스 룸

④ 하와이 카이 구역 모임

일시: 6월 28일(일) 오후 6시

문의: 김글라라 349-2654

기타공지

■ **故 김금선 우슬라 자매님의 장례미사에** 참석하시고 기도해주신 분들께 유가족들의 감사를 전합니다.

■ **故 최영자 데레사 자매님이 향년 96세로(6월 6일) 선종하셨습니다.**  
장례미사 : 6월 24일(수) 10:30 연도 : 9:30(조의금은 사절합니다)  
고인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권지훈 베드로 신부님 영명 축일

6월 29일 월요일인 관계로 행사는 6월 28일(일) 교중미사 후에 있습니다. 신부님 영명 축일을 축하하며 신부님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적선물 용지는 예물 접수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 교무금 납부 안내

6월 30일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아직 교무금을 납부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무금은 성당 운영에 소중히 사용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당분간 제대꽃은 날씨 관계로 화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헌금

7월 4/5일 Holy Father(Peter's Pence)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6월 13일/14일: \$12,739				지난주 미사 참례자 총 283명
	주일헌금	교무금	2차헌금	특별헌금	
	\$3,444	\$5,150	\$1,424	\$2,721	

<b>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b>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섭 / 599-9810, 592-5011	<b>브라이언 오토 바디샵</b> 자동차 바디수리·보험처리/친절상담 흥 프란치스코 / 836-5887	<b>뷰티터치 (BEAUTY TOUCH)</b> 한국 화장품 종합 백화점 문의: 임영림 안나 Tel: 808-271-4802
<b>New York Life</b> 은퇴연금/학자금/투자/재무설계 차 그레고리오 808-226-3344	<b>Ginzawon (긴자원)</b> Korean B.B.Q (Waikiki) 문의: 김태영 안토니오 808-220-0768 808-922-3387	<b>STEADY AUTO</b> 유럽차 정비 전문가 문의: 808-772-2271 European car specialist

## ※ 미사 해설 - 성찬 전례(4) : 예물 준비에 대해서

- \* 빵 봉헌 : 사제는 빵이 담긴 성반을 두 손으로 제대 위에 조금 높이 받쳐 들고 조용히 기도한다.
- \* 포도주 준비 : 사제 또는 부제는 성작에 포도주를 붓고 물을 조금 따르면서 속으로 기도한다.
- \* 포도주 봉헌 : 사제는 두 손으로 성작을 제대 위에 조금 높이 받쳐 들고 조용히 기도한다.
- \* 봉헌 기도 : 그 다음에 사제는 허리를 굽히고 속으로 기도한다.
- \* 정화 예식 : 이어서 사제는 제대 한쪽으로 가서 손을 씻으며 속으로 기도한다.
- \* 성찬례로 초대 : 사제는 제대로 가서 교우들을 바라보고 팔을 벌렸다 모으면서 말한다.

④ 정화 예식 : 예물 준비가 끝나면, 주례사제는 제대 한쪽으로 가서 조용히 손을 씻으며 다음과 같이 사적 기도를 바칩니다. “주님,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없애 주소서.” 이 기도는 유대인들이 식사 전 손을 깨끗이 씻었던(마르 7,3-4) 전통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예식 안에 담긴 상징성은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성찬례에 임하겠다는 내적 정화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⑤ 성찬례로 초대 : 예물을 제대 위에 차리고 정해진 예식을 마치면, 사제는 함께 기도하자고 신자들을 초대합니다. 이 초대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예식서에 나온 부분을 다시금 읽어 보고, 되새겨 봅시다.

(사제는 제대 한가운데로 가서 교우들을 바라보고 팔을 벌렸다 모으면서 말한다.)

+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교우들은 일어서서 응답한다.)

◎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미사는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제사이자, 기도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에 주례 사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봉헌하는 이 거룩한 제사를 받아주십사 청하고, 신자들에게는 거룩한 제사를 봉헌하는 데 합당한 마음을 지니자고 초대합니다. 이러한 초대에 신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통해 봉헌되는 이 제사가 우리 공동체와 온 교회, 그리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응답합니다. 즉, 이 부분은 성찬례를 준비시키는 목적과 동시에 거룩한 미사의 합당한 목적을 일러주는 부분입니다.



알아드립니다

## ※ 연중 12 주일 강론 요약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될 어려움과 박해를 아셨기 때문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건강,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뿐 아니라 신앙을 드러내고 실천하는 데서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람들의 시선, 손해를 볼지 모른다는 걱정, 관계의 갈등 때문에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망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선조들은 처음부터 두려움이 없었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조롱과 박해 속에서 두려움을 겪었고, 베드로와 제자들도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한국 교회의 순교자들 또한 죽음과 고통 앞에서 두려워했지만, 그 두려움보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더 컸기에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느님의 돌보심 없이 떨어지지 않으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어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두려움과 약함까지도 모두 알고 계시며 언제나 함께하신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위대한 이유는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순교자들의 후손으로서 일상 안에서 신앙을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 학교와 사회 안에서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느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신앙의 선조들을 본받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권지훈 베드로 신부

<b>ARBOR Financial Group NML# 236669</b> 심소영: 주택융자담당 Cel:(808)798-5100 Email:sharis@arborfg.com	<b>최 니콜 부동산</b> Locations,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	<b>메디케어 보험</b>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
<b>피아노 개인 레슨</b> 모든 연령대 레슨 가능 문의:허은혜 레지나 401-871-2681 Lynnpiano123@gmail.com	<b>A'ALA Meat &amp; Seafood Inc</b> 문의전화 808-452-8473 서삼철 사무엘 samseo@aalameatandseafood.com	<b>보나 최 부동산</b>  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